

2004년 東崇學術財團이 선정한 언어학자 洪起文(1903~1992)

대산(袋山) 홍기문(洪起文)은 1903년 9월 23일(음력 8월 3일) 서울(종로구 계동 38번지)에서 아버지 풍산(豐産) 홍(洪) 씨 명희(命熹, 1888~1968)와 어머니 여흥(驪興) 민(閔) 씨 순영의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1910년 8월 29일 저녁 금산군수인 할아버지 홍범식(洪範植)이 경술국치(庚戌國恥)에 항거하여 소나무에 목을 매어 자결하였다. 민족적 울분으로 일본 유학을 중단하고 봄에 귀국해 있던 아버지를 따라 피산으로 내려갔다. 아버지 홍명희는 일제 치하에서 식민지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학령기에 이른 아들 홍기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순국은 민족의 해방과 통일을 위해 힘쓰는 민족주의자, 민족의 언어와 역사 및 문화를 탐구하는 국학자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1910년 8월부터 1918년 16살까지 피산에서 증조부의 지도로 한문 공부에 전념했다. 1912년 중국으로 떠난 아버지가 1918년 여름에 귀국했다. 집안은 몰락일로를 걷고 있었다.

1919년 17살 3.1운동 때 피산 만세 시위로 아버지의 투옥으로 집안이 몰락하여 피산 인산리의 대저택을 처분하고 제월리의 묘막(墓幕)으로 이주했다. 이때 아버지의 휴지 상자 속에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읽고 국어 연구를 결심하고서, 주시경 「말의 소리」, 김두봉 「조선말본」, 일본과 서양의 언어학 이론서 등의 독서에 돌입했다. 이때부터 3년 동안 홍기문은 앉아도 우리말, 서도 우리말, 누워도 우리말, 걸음을 걸어도 우리말, 하다 못하여 꿈에도 우리말이었다고 한다. 아버지의 투옥을 겪음으로써 뚜렷한 민족의식의 소유자로, 근대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국어 연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제1차 국어 연구)**.

1920년 8월 18살에 이계순(李桂順)과 혼인하였고, 1921년 홍 씨 일가는 서울로 상경하여 셋집을 전전하며 해방 후까지 가난에 쪼들리는 생활을 했다. 서울에서 정인보(鄭寅普)로부터 한문을, 이관용(李灌鎔)으로부터 철학, 심리학을 배웠다.

1922년 20살에 중국(~1924년), 일본(~1926년) 유학하였다.

1927년 25살에 신간회 활동(~1931년)과 더불어 ‘朝鮮文典要領’이란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다. 서언에 ‘朝鮮語研究叢書’란 제목으로 (1) 文典要領, (2) 正音의 起源及變革, (3) 方言과 古代語, (4) 朝鮮의 漢字音, (5) 朝鮮語와 滿洲의 比較 등을 발간할 계획을 세웠다.

1927.01. “朝鮮文典要領.” 「現代評論」 1-1.

1927.03. “朝鮮文典要領(第二編名詞).” 「現代評論」 1-2.

1927.04. “朝鮮文典要領(第三編動詞,形容詞).” 「現代評論」 1-3.

1927.05. “朝鮮文典要領.” 「現代評論」 1-4.

1927.06. “朝鮮文典要領(第六編).” 「現代評論」 1-5.

1931년 29살에 신간회의 해체 이후로 다시 국어 연구에 들어갔다. **(제2차 국어 연구)**.

1932년 30살에 조선일보 입사하여(~1940년) 국어 문제와 관련한 수편의 글을 조선일보에 연재로 발표했으며, 1940년 7월 훈민정음해례 원본을 번역하여 방중현 명의로 연재하였다. 그렇다면 결국 훈민정음의 최초 번역은 홍기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방중현의 「

原本解釋 訓民正音」(京城: 震學出版協會, 1946.7)과 유열의 「풀이한 훈민정음」(서울: 普信閣, 1948.6)은 그 뒤를 이은 것이라 하겠다.

- 1933.01. “混亂中の 綴字法 그 整理의 一案.” 조선일보 연재(23회. 1.29~3.2).
- 1933.07. “各設 紛紛한 訓民正音 起源.” 조선일보 연재(5회. 7.6~19).
- 1934.04. “語源의 考證: 數詞의 諸形態 研究.” 조선일보 연재(9회. 4.8~18).
- 1934.05. “語源의 考證: 親族名稱의 研究.” 조선일보 연재(13회. 5.27~6.15).
- 1934.10. “朝鮮語 研究의 本領.” 조선일보 연재(10회. 10.5~20).
- 1935.08. “漢字의 研究.” 조선일보 연재(9회. 8.30~9.15).
- 1935.10. “朝鮮語의 重要論題인 ‘ㅎ’音語에 대한 小論.” 조선일보 연재(8회. 10.23~11.1).
- 1936.01. “正音字語 整理의 새 提唱.” 조선일보 연재(7회. 1.30~2.5).
- 1937.08. “齒書와 雙書.” 조선일보 연재(2회. 8.30~31).
- 1937.10. “等韻學의 研究.” 조선일보 연재(5회. 10.26~30).
- 1940.07. “소개1: 原本訓民正音의 發見.” 조선일보 1940.7.30. 4면. 方鍾鉉 명의 발표.
- 1940.07. “소개2: 原本訓民正音의 發見.” 조선일보 1940.7.31. 4면. 方鍾鉉 명의 발표.
- 1940.07. “소개3: 原本訓民正音의 發見.” 조선일보 1940.8.1. 4면. 方鍾鉉 명의 발표.
- 1940.07. “소개4: 原本訓民正音의 發見.” 조선일보 1940.8.3. 4면. 方鍾鉉 명의 발표.
- 1940.07. “소개5: 原本訓民正音의 發見.” 조선일보 1940.8.4. 4면. 方鍾鉉 명의 발표.

方鍾鉉(1940.7). “소개 1: 原本訓民正音의 發見.” 조선일보 1940.7.30. 4면.

(전략) 여기서 世間에서 傳하는訓民正音이 原本이나 아니냐의 問題가 提起되거니와 洪起文兄과 나 두 사람은 그곳 原本이 아님을 確信하고 爾來 數年間 그 原本의 考證과 想像의 再現을 爲이하여 努力하여 왔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스랴. 數月前 그 原本은 慶北某古家에서 發見되어 市內某氏의 所有로 돌아 간 것이다. 그 原本을 對하여 우리 두 사람은 맨먼저 우리의 수고가 헛되었음을恨하는 同時에 (중략) 千慮의 一得을 스스로 기뻐하지 안 할수 없다. 이제 먼저 그原文의 翻譯을 실고 뒤를 이어 거기 對한 註解 乃至 우리 두사람의 研究를 發表하겠다. 단지 이책을 入手한지 겨우 旬日을 넘지 못하여 그 譯文이 아직 未定稿도 잇는것을 諒解하기 바란다. (여기 對한 一切의 發表는 兩人中 누구의 이름으로 되든지 共同勞作임을 付記하여 둔다)

方鍾鉉(1946.7). 「原本解釋 訓民正音」(附反對文). 京城: 震學出版協會.

譯者의 말

이글은 벌써 五年前인 庚辰年 七月 三十日로부터 八月 四日 까지 五回로 分하여 朝鮮日報에 揭載되었던 것이다. 그 發表者의 名義는 비록 내 이름으로 되었으나 이것을 實際로 翻譯한 이는 洪起文이다. 洪兄은 特히 訓民正音과 韻書와의 關係를 研究하는 方面에 專力하여 왔고 나는 주로 우리말의 資料 卽 文獻을 考證하는데 致重하여서 以來 數年間 서루 같은 方面의 學問을 或은 分하여서 더러는 습하여서 繼續하여 왔다. 鷄林類事의 註解와 訓民正音의 原本을 찾으려고 한것은 이것은 合議에서 한 일이고 東國正韻의 原本을 他資料의 考證에 依據하여 想像의으로 그 原本을 再現하려고 圖謀하는것 같은 일은 이것은 洪兄의 獨擔的의 研究이었다.

그러던 중에 慶北 義城에서 訓民正音의 原本에 가까운 古本이 나와서 (중략) 이 原文의 翻譯을 내 이면서 뒤이어 이에 關한 研究를 發表할것을 紙面上으로 約束하였던 것이다. (하략)

1940년 8월 38살에 조선일보의 폐간으로 실직하게 된 홍기문은 이미 1939년에 아버지가 이사 간 양주군 노해면 창동 역전 부근에 따로 마련한 집에 칩거하여 국어 연구에 몰두하였다. 이후 5년 동안 고려사를 전독하고 조선왕조실록 전질을 두 번이나 통독하였다. (제3차 국어 연구).

方鍾鉉(1946.7). 「原本解釋 訓民正音」(附反對文). 京城: 震學出版協會.

譯者の 말

(전략) 그러나 그 後 한週日도 다 못되는 八月 十日에 朝鮮日報가 廢刊이 되므로 洪兄은 完全히 그 後 世上일에서 손을 떼고 곳 高麗史를 全讀하였으며 이어서 五百年 實錄의 全秩을 二次나 通讀하면서 必要한 資料를 拔萃하는데 五個年이란 歲月을 보내게 되었다. (하략)

1945년 43살에 서울신문사에 입사하여(~1948년), 근무하는 기간에 「正音發達史(上·下)」와 「朝鮮文法研究」가 나왔다.

1946.08. 「正音發達史」(上·下). 서울: 서울신문社.

1947.01. “國語의 當面課題.” 서울신문 연재(2회. 1.4~5).

1947.01. “國語淨化의 種種面.” 서울신문(1.11).

1947.01. “國語研究의 苦行記.”(수필) 서울신문(1.14).

1947.06. 「朝鮮文法研究」. 서울: 서울신문社.

「正音發達史」(上)

自序

(전략) 이 著書의 內容을 이루는 資料는 著者가 三十三歲서부터 三十七八까지 新聞記者의 職업을 가지고 잇스면서 蒐集하여 노흔 것이요 著書로 曼들기는 民間新聞이 廢刊됨에 賚아 著者가 오히려 多幸히 失職한 直後다. 그로부터 쯤 五六年동안 資料를 좀더 만히모았고 見解上 多少의 差違도 업지 안 치만은 新聞記者로 다시 나온 그로서는 그全篇을 손뎠 거를을 엇기 어려운 것이다. (하략)

第一篇 古典의 解詁

第一章 例義

第三章 諺解

第二章 解例

第四章 參考文獻

「正音發達史」(下)

第二篇 沿革의 考證

第一章 製作의 緣起

第三章 發表의 徑路

第五章 實用의 諸政策

第七章 協贊의 主要人物

第二章 名稱과 用法

第四章 發表後의 修正

第六章 製作과 紹述

第八章 反對의 一派

1948년 46살에 월북하였다. 북한에서 「향가 해석」(1956), 「리두 연구」(1957), 「조선어 력사 문법」(1966) 등의 저서를 냈다.

1949.07. “三國 時代 朝鮮 漢字音과 우리의 語音.” 「조선어 연구」 1-4.

1949.12. 「訓民正音譯解」(田蒙秀 공동). 평양: 조선 어문 연구회.

1956.02. “어휘가 가지는 의의.” 「조선 어문」 1.

1956.02. “조선어의 기본 어휘와 어휘 구성에서 고유 어휘와 한자 어휘가 가지는 관계.” 「조선 어문」 1.

1956.10. “조선에서 외국어를 연구한 력사: 19세기 말까지.” 「조선 어문」 5.

1956.12. “조선어에서 구개음화의 력사적 발달.” 「조선 어문」 6.

1956.12. 「향가해석」. 평양: 과학원출판사.

- 1956.?? “고구려 리두와 신라에서의 그 발달.” 『김대 학술 논문집』(8.15 해방 10주년 기념).
- 1957.05. “정음’자에 반영된 15세기의 어음 현상.” 『조선 어문』 3.
- 1957.09. “고대 조선어에서 형용사의 특이한 변천 과정.” 『조선 어문』 5.
- 1957.12. 「리두연구」. 평양: 과학원출판사.
- 1958.02. “몽고어 문자 개혁 경과.” 『조선 어문』 2.
- 1958.06. “명사가 술어나 규정어로 쓰일 경우 나타나는 ‘이’의 본질.” 『조선 어문』 4.
- 1958.06. “朝鮮語基本詞彙和詞彙的構成中固有詞和漢語詞彙的關係.”(周時龍 共譯) 『少數民族語論集』
1. 北京: 中華書局.
- 1958.08. “고대 조선어의 형태와 현대어의 토.” 『조선 어문』 5.
- 1959.03. 「고가요집」(조선 고전 문학 선집 1). 평양: 국립 문학 예술서적 출판사.
- 1959.05. “조선어 문장론에 대한 나의 연구 방향.” 『조선 어문』 3.
- 1959.11. “조선어와 몽고어와의 관계.” 『조선 어문』 6.
- 1961.11. “조선어 한자 어휘의 문제.” 『조선 어학』 4.
- 1962.04. “조선에서의 한자 어휘에 대하여.” 『朝鮮學報』 23.
- 1964.01. “삼국 시대의 지명과 조선어의 계통 문제.” 『조선 어학』 1.
- 1964.?? 「조선어사연구」(김병제, 박종태 공동).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 1964.?? “중국고문헌의 기록과 조선어의 계통문제.” 『고등교육』 7.
- 1966.02. 「조선어 력사 문법」. 평양: 사회 과학원 출판사.

※ 참고로 한국어학회의 「한국어학」 17집에 ‘자료 발굴과 소개’에 나와 있는 ‘홍기문’ 부분을 첨부한다<쾨넨비치·심비르제바의 “1950년대 말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조선 언어학 역사: 라치코프와 마주르의 개인 문헌 보관 자료 참조,” 『러시아 한국학』(모스크바 국립대학교 한국학 국제 센터 연감, 제2권, 모스크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출판부, 2001년)>.

홍기문(洪起文, 두 가지 이름 표기 — 홍기문/홍기문, 1903-?) [I/2] 두 가지 이름으로 인해 그는 전통적 표기 ‘기문’을 선호한다. 모든 초상화는 김일성 대학에서 그리고 북한 과학 아카데미에서 1958년 제작되었다. 평양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사진을 찍은 것이 있다. 홍기문에 대해서, 그는 그 당시 존경받는 교수였다. 나와 마주르는 대학에서 정기적으로 조선어사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대한 질문도 하였다: 방언학, 음성학, 문법, 문헌사. 「리두 연구」(1957), 「향가 해석」(1956)은 언어사에 대한 그의 중요한 연구이다. 조선어학의 여러 분야에서, 무엇보다도 언어사에 대한, 그의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홍기문은 나에게 그의 조선어 문법을 선물해 주었다(1948). 이 사진에서 그는 농가 근처에서 있었다. 그때 당시 과학 아카데미 건물은 준공 중이었기에, 조선 학자들은 그 건물에서 연구하여야 했다. 홍 교수에게는 개인적 방이 있었다.



홍기문은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문법은 남조선에서 발표되었다. 우리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우리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그 음식들은 모두 쌀을 주로 하여 된 것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벌꿀을 넣은 쌀이었다. 그는 조선 부역의 편이성을 설명하였다. 1960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동방 언어학자들의 29차 국제 학술 대회에 참여하였다. 이미 그는 죽은 것으로 생각된다.

홍기문은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문법은 남조선에서 발표되었다. 우리는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우리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그 음식들은 모두 쌀을 주로 하여 된 것이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벌꿀을 넣은 쌀이었다. 그는 조선 부역의 편이성을 설명하였다. 1960년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동방 언어학자들의 29차 국제 학술 대회에 참여하였다. 이미 그는 죽은 것으로 생각된다.

홍기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학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뛰어난 작가인 홍명희(洪命熹)이다. 애국주의로 알려진 군 지방관 집안 출신이며, 1919년 3.1운동의 참여자이고, 30년에 발

표된 소설 「림격정전」의 작가. 1952년 북조선 아카데미의 초대 회장, 최고 지위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북조선 외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북한 최고 회의 간부회의 일원이며, 통일 민주주의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의 의장이었다. 홍기문은 제1차 최고 인민 회의 대표 위원이었고, 통일 민주주의 조국 전선 중앙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평양에서 우리 동료 교수가 체류했던 시기에 그는 학술원의 교수이자 박사였다. 후에 북조선 사회 과학 대학의 회원이 되었다. 1945년 이후 조선 음성학의 역사에 대한 훌륭한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마주르와 라치코프가 평양에서 체류하던 해에 그는 김일성 대학의 한문 연구 분과의 교수들과 함께 조선에서의 기술학 역사에 대한 통시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동 대학의 조선어학 연구실에서 조선어의 역사 문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중국 작품의 어휘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50-60년에 홍기문은 주석을 달아 한문을 현대 조선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조선 고전 문학선집」의 시리즈물(「고전가요」(1959, 1권), 단편소설 「폐설」(1958, 10권), 18세기 작가 박지연의 전집 등을 포함하는) 출판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에 그는 현대 조선어로 「리순신 장군 전집」을 번역 발표하였다. 70-80년에 한문의 전문가인 그의 지도하에 조선의 중요한 문헌 「李朝實錄」, 「大藏經」 등이 번역 발표되었다. 참조: 「조선 어문」에 실린 그의 비평.

<참고문헌>

- 강영주(2004). “특별연구: 국학자 홍기문 연구.” 「역사비평」 68. <http://www.dbpia.co.kr/Uutils/printPage.aspx?arID=550364>. (2004/11/3).
- 강영주(2004). 「벽초 홍명희 평전」. 파주: 사계절출판사.
- 金敏洙 編(1991).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서울: 녹진.
- 金敏洙(1985). 「北韓의 國語研究」. 서울: 高麗大學校 出版部.
- 金敏洙(1992). 「新國語學史」(全訂重版). 서울: 一潮閣.
- 金榮福·丁海廉 編譯(1997). 「洪起文 朝鮮文化論選集」. 서울: 現代實學社.
- 김영환·권승모 編(1996).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 柳穆相(1990). “국어학사의 재조명: 洪起文(1947), 「朝鮮文法研究」.” 「周時經學報」 5.
- 李觀洙(1988). “국어학사의 재조명: 洪起文(1946), 「正音發達史」.” 「周時經學報」 2.
- 최호철(2002). “자료 발굴과 소개.” 「한국어학」 17.

<2004년 11월 23일 최호철>